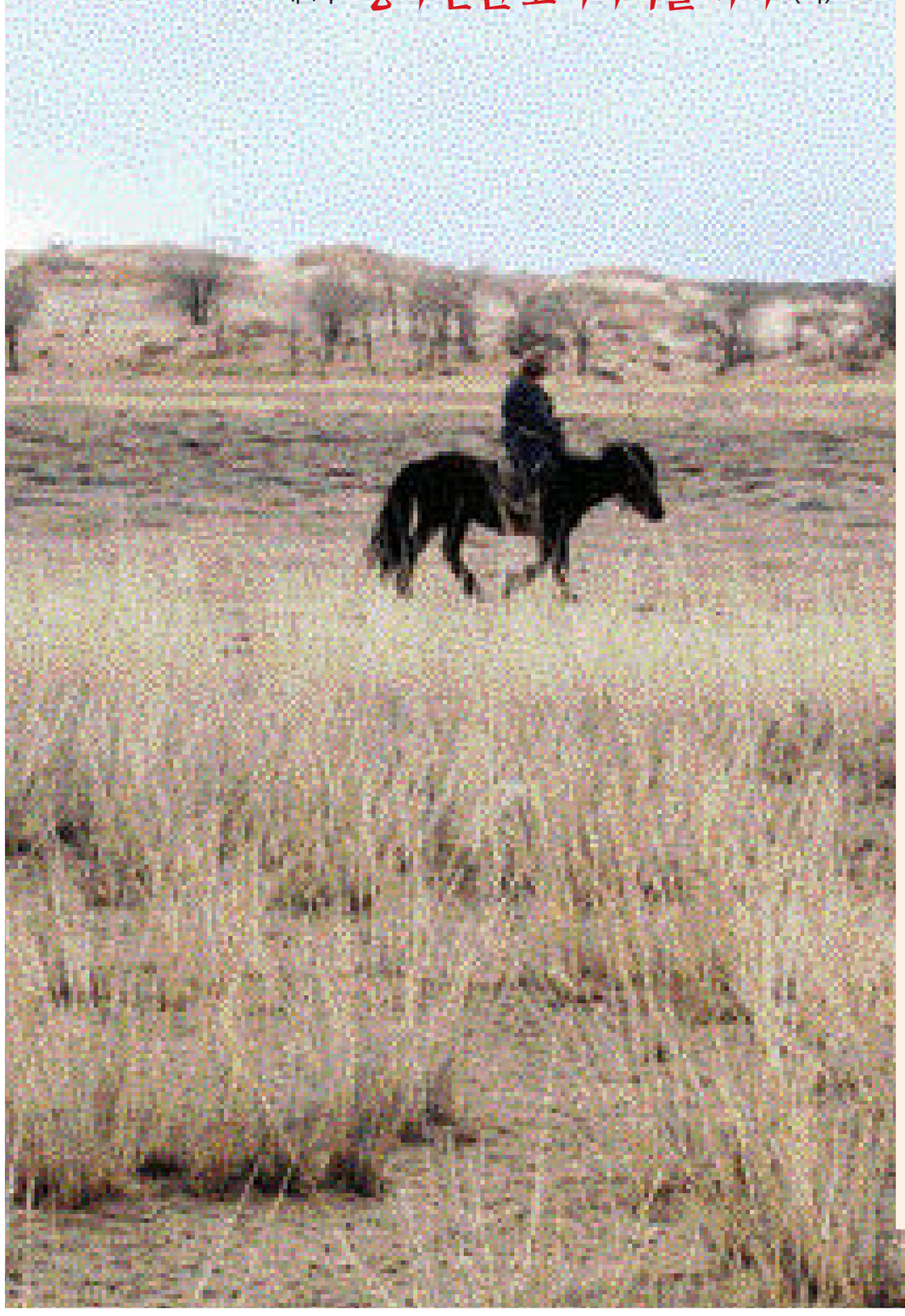
사막화 첫째 원인은 '과도한 방목'

올해는 UN이 정한 사막화 방지의 해

제 1부 **황사 근원 고비사막을 가다** (하)



100만여명 유목 생활…1가구에 양 1,000여마리

초원에 듬성듬성 난 풀마저 뜯겨 불모의 땅으로

다양한 작물 재배·경작기법 전수 정착유도 시급

몽골에서 사막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이유는 적은 강우량(연평균 250mm 이하)과 건조한 기후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목민들 탓이 더 크다. 몽골은 국토의 90%가 초원과 산림이고, 경작지는 1%밖에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몽골인들은 초목을 유랑하며 가축을 치는 유목생활을 주업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유목은 필연적으로 주변을 황폐화시키고, 사막화를 촉진한다. 방목된 가축이 초원의 풀뿌리까지 먹어버려 불모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다. UN도 전세계 사막화 진행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과도한 방목'(headings of overgrazing)을 꼽았을 정도다.

취재진은 바양고비(Bayan Govi)사막에서 2가구의 유목민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들은 각각 1천여마리의 염소와 양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들의 일과는 해가 뜸과 동시에 가축들을 풀이 있는 곳으로 끌고 나가 풀어놓는 것. 아직 사막으로 완전히 변하지 않아 듬성듬성 풀이 나 있는 곳이 가축들의 '놀이터'가 된다.

땔감 마련 나무 남벌도 문제

방목한 가축들은 이곳에서 '대르스'라고 불리는 흰 갈대와 '태흐잉 시애그'라는 작은 갈대 나무를 해가 질 때까지 뜯는다. 먹을 것이 없으면 현지인들이 '보르가스'라고 부르는 갈대 나무의 잎을 씹기도 한다.

모래사막의 능선을 배경으로 한 채 2천여 마리에 달하는 염소와 양이 널리 흩어져 풀을 뜯는 정경은 말 그대로 '한 폭의 그림'이지만, 실은 사막화를 부추기는 현장인 것이다.

기술의 발달로 갖가지 '문명의 이기'들이 몽골에도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 몽골인들은 '칭기즈칸의 후예'다운 방식으로 생활한다. 250만명의 인구 중 수도 '울란바토르'(Ulaanbaatar)에 거주하는 90만명을 제외한 대부분은 유목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몽골의 사막화가 사하라 사막 등 타 지역에 비해 심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의 '(재)지구·인간환경포럼'은 몽골 정부가 사회주의를 표방하던 시기에는 유목민들이 방목하는 가축의 수를 국가가 적절하게 관리했지만, 1990년대 자본주의로 전환하면서 과잉방목 상태가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유재산의 개념이 생기자 유목민들이 사육하는 가축을 크게 늘렸고, 사막으로 변하는 땅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양고비'사막에서 자라는 식물. 왼쪽의 사람 키보다 훨씬 큰 갈색식물은 현지인들이 '보르가스'라고 부르는 나무이며, 키가 작은 흰 갈대는 '대르스'라고 한다. 사막과 초원의 경계에는 이 같은 풀이 자라고 있지만, 유목민이 방목한 가축의 먹이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유목민들이 땔감을 구하기 위해 산림을 남벌하는 것도 사막화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은 난방을 장작으로 한다. 유목민들의 전통 가옥인 '게르'의 한가운데에는 장작으로 불을 지피는 난로가 있다.

산림 전문가들 육성해야

몽골은 거대한 유전을 갖고 있는 산유국(産油國)이지만 정유시설이 없어 유목민들은 아직도 나무를 주 난방원으로 사용한다. 몽골의 국내 석유 소비량의 92%는 러시아와 중국 등에서 수입된다.

취재진이 머물렀던 게르도 장작으로 불을 땠는데, 50cm의 장작 2개는 2시간 가량 뜨거운 열기를 내뿜다 꺼졌다. 한국보다 고위도에 있는 나라이니만큼, 5월에도 밤에는 불을 때야만 잠을 잘 수 있다. 밤에는 2시간마다 일어나 장작을 난로에 집어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유목민들은 익숙한 듯 한번도 거르지 않고 불을 지폈다.

일본과 미국 등 세계의 사막전문가들은 몽골의 사막화를 막으려면 단순한 나무심기보다는 교육을 통해 몽골인 산림 전문가들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몽골에 '방풍림'(防風林·Windbreak Forest)을 조성하는 것보다 유목민들에게 방목 이외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얘기다.

또 황폐한 몽골 땅에 다양한 작물의 재배와 경작기법 등을 전수하는 것이 황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이라고 이들은 역설한다.

우리 정부와 환경단체들은 해마다 중국과 몽골로 건너가 거액을 들여 나무를 심으며 황사를 막는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몽골의 사막화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해결되는 '고르디우스(Gordius) 매듭'이었다.

몽골 바양고비 = 임주형·최현배 기자